# 언어영역

1 공 통

# 제 1 교시 언어영역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5~6 번]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언어영역

공 통 2

어찌 저런 못생긴 병아리가...
나도 멋진 병아리가 되고 싶어.
아니, 저건 독수리 아냐?
내가 독수리라고?
네가? 그럼 한 번 날아봐.
과연 날 수 있을까?
야호, 나는 독수리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신경림, 농무 –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 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마저 가 버리면
억만 세대(???ほ)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듸!'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허무한듸!'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동나무 가지에 매어달린 가설무대

# 언 어 영 역

공 통 4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우리들은 서양 것은 덮어놓고 과학적이려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역법에 관한 것이다. 역법이란 해와 달의 변화 속에서 어떤 계기를 잡아 인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에서 어느 시각을 잡아 새해의 시작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나 달이 어떤 특수한 시작점에 있을 때를 잡아 새해의 시작이라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양력 1 월 1 일은 새해의 시작으로는 낙제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음력은 이와 정반대이다. 서양의 양력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적인 때가 묻어 있는 것과 달리 동양의 음력에는 나름의 과학성이 있다. 7 월의 'July'와 8 월의 'August'는 원래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Julius Caesar)와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생일이 그 달에 들어 있음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8 월의 날수도 원래는 30 일이었으나, 황제의 생일을 이왕 기념하는 바에 더 길게 하기 위하여 연말에서 하루 더 가져다가 31 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음력에서는 달 이름에 사람 이름을 붙여 놓은 일은 없다. 음력에서는 1 월, 2 월, 3 월, 4 월 등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 달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혹시 다른 이름을 쓴다 해도 '꽃 피는 달', '새 우는 달' 등과 같이 운치 있는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다. 또 음력에서는 한 달의 날짜수가 29 일과 30 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지만, 그 까닭은 순전히 자연 현상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 황제의 생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하여 30 일이었던 달을 31 로 만드는 인위적 조작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음력에서는 달마다 15 일을 보름(?)이라 하여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날로 맞춰 놓았다. 그렇게 되면 초하루(?)는 저절로 결정되고 그 전달의 크기가 29 일이 될지 30 일이 될지도 그에 따라 저절로 결정된다. 사람들의 뜻대로 29 일이나 30 일이 되는 일이 없다. 황제의 생월이라고 30 일을 31 일로 늘려 놓은 서양의 양력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한 달의 길이가 결정되는 우리의 음력 중 어느 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는 따져 볼 것도 없다.

그러면 왜 음력은 날짜가 계절과 잘 맞지 않는 걸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래 음력은 날짜를 달 모양의 변화에 맞게 만든 것이지 계절에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춥고 더운 계절의 변화란 태양의 운동에 따라 좌우된다. 음력에서는 이런 태양 운동을 24 절기(?Ł)로 나타내고 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하며 이어지는 24 절기란 바로 태양 운동을 24 등분하여 붙여 놓은 이름이다. 당연히 24 절기는 각각의 계절에 정확히 상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음력 속에 들어 있는 양력인 셈이 된다.

우리는 그저 음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음력 속에는 양력 성분이 24 절기로 들어 있다. 그래서 과학사에서는 동양의 음력을 태음태양력이라 부른다. 달의 운동을 날짜로 나타내며, 태양의 운동은 24 절기로 나타냄으로써 해와 달을 함께 나타낸 훌륭한 역법인 것이다. 음력 날짜를 가지고 계절과 맞지 않는다고 타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은 절기로 알고 날짜로는 달의 크기만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에게 그날그날 달 모양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또 달의 모양은 밤의 밝기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수의 간만도 좌우한다. 또한 24 절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수, 춘분, 곡우, 소만 등과 같은 중기(?Ł)와,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등과 같은 절기(?Ł)로 구분된다. 그런데 14 일쯤에 절기만 들어있고 중기가 없는 달이 있으면 그 전달이 윤달이 되는 것이다. 음력에서 윤월을 넣는 방법도 바로 이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질서를 부여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동양인들이 수 천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음력은 과학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합리적인 체계이다. 달 모양의 변화에 따라 한 달의 날수를 결정한다든지, 태양의 주기를 고려한 절기에 따라 계절을 인식하는 점 등은 서양의 역법에 비해 음력이 상대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점]

# 언 어 영 역

공 통 6

날러는 엇디 살라 ㅎ · 고
ㅂㅂ ㄴ러고 가시리잇고 나ㄴ · ㄴ
위 증즐가 ㅁ??ㅎ(대평성대)

ㅎ선ㅎ · 면 아니올셰라
위 증즐가 ㅁ??ㅎ(대평성대)

□셜온님 ㅇㅂ배ㅇ·ㅂ노니 나ㄴ · ㄴ
ㄴ가시ㄷ·ㅅㄴ ㄷㄴㅅ 도셔오쇼셔 나ㄴ · ㄴ
위 증즐가 ㅁ??ㅎ(대평성대)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ㄴ)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나리며 헤뜨며 바니니
져근덧 역진(??)하여 풋잠을 얼핏드니
정신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려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뎐된 □계성(ㄹ?)의 잠은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결의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싀여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밖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니와 □궂은 비나 되소서.

* 모첨(??) : 초가집
* 반벽청등(???ㄴ) :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
* 져근덧 : 잠깐 사이에
* 헤뜨며 : 허둥거리며
* 바니니 : 서성대니
* 오뎐된 계성(ㄹ?) : 방정맞은 닭소리
* 싀여지어 : 죽어서

– 정철, 속미인곡 –

ㅂㅂ ㄴ러고 가시리잇고 나ㄴ · ㄴ
위 증즐가 ㅁ??ㅎ(대평성대)

(다)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속엿관대

월침삼경(???Z)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이 하리오.

* 월침삼경(???Z) : 달이 기울어진 한밤 중

– 황진이 –

# 언 어 영 역

공 통 8

우리의 일상사에 '대기만성(ま%??)'이라는 말도 있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과 함께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다. 또한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적 입장과 함께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할 뿐이다.'라는 우연을 강조하는 양자 역학자들의 비결정론적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이 인간사 자체가 양면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사물이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가치관의 형태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함에 있어서 미적 판단, 지적 판단, 기능적 판단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하나의 시점에서 판단을 고정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장자가 명가(?‖, 논리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제자백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친구 혜자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혜자가 장자에게 "자네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야."라면서 반박하였다. 이에 장자는 그에게 "자네가 쓸데없음을 알기에 내 얘기는 '쓸데 있는' 것이네. 예를 들어 이 큰 대지 위에 자네가 서 있는 자리, 즉 설 수 있는 것은 겨우 발바닥 밑부분뿐이지. 그렇다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라 하여 발바닥 이외의 땅을 다 파 버리면 자네가 선 땅덩어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땅을 제외하고 모두 파내면, 자신은 오도가도 못함은 물론이려니와 땅이 밑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쓸모 있음[??]은 쓸모 없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무용과 유용, 유용과 무용은 인간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용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는 유용의 관점에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만남이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서로 상대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만남의 관계가 단절된 시점에서부터 상대의 필요성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까이 있던 사람의 부재(??),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장자의 예화에서 세속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존재 가치를 한 방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만을 고집하여 아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언어영역

9 공 통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하는 것을 떳떳치 않게 여기는 북곽 선생이란 선비가 있었다. □나이 40에 손수 교서한 책이 만여 권이고 아홉 경서(h?)의 뜻을 해석하여 저술한 책이 1만 5천 권이나 되었다. 그래서 천자(??)는 그 의기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그 고을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동리자'란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천자(??)는 그의 정절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어짊을 흠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 과부의 마을'이라 하였다. □동리자는 수절 잘하는 과부라 일러 오지마는, 아들 다섯은 성이 다 달랐다.

어느 날 밤 그 다섯 아들들이, "개울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개울 남쪽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이 밤중에, 방안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북곽 선생의 목소리와 아주 흡사하구나"하고, 다섯 형제가 번갈아가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마침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꿇어 앉아서 시를 읊는다.

□원앙은 병풍에 노닐고 / 반딧불 깜박깜박 흐르는데
용가마 세발가마는 / 누구의 것 본뜬 것일까, 흥이 나는구나.

다섯 아들들이 서로 소근소근 예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집 문에는 드나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분이라 그럴 리가 없겠고, 내 들으니 정나라의 성문이 헐어서 여우굴이 생겼다는데, 여우가 천 년을 묵으면 능히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니, 그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먼 하고, 다섯 아들은 다시 의논하기를, □"여우의 신(?)을 얻으면 대낮에도 형체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아양을 잘 떨어서 남을 즐겁게 한다고 하니, 우리 저 여우를 죽이고 나누어 가지자" 하고 다섯 아들이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곽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한쪽 팔을 비틀어 목에 얹고, 귀신처럼 춤을 추고 귀신처럼 웃으면서 문을 뛰쳐나왔다. 북곽 선생은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들 가운데 파 놓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허위적허위적 가까스로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목을 빼어 둘러 바라보니, 범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고는 코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선비란 참으로 구린 것이로군" 한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범의 앞으로 기어나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범님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조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남의 자식된 사람은 그 효도를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명성이 신룡(??)과 같으시어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일으키시는데, 저 같은 미천한 자는 그 위풍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니 범이 크게 꾸짖었다.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전에 내가 들으니 유(?)는 유(?:아첨하다)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악명이란 악명을 다 모아 내게 붙이더니, 이제 다급해지니까 면전에서 아첨하니 누가 네 말을 곧이듣는단 말이냐?"

천하의 이치는 오직 하나다. □범의 성품이 진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도 착할 것이다. 네가 별의별 말을 다 해야 그것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고 해야 그것은 언제나 사강(?˚F)에 있다. 그러나 도회지나 마을에 코 없고 발꿈치 없고, 얼굴에 자자(??:문신-범죄자라는 낙인)하고 다니는 자들이 모두 오륜을 지키지 않은 그 잘났다는 인간이 아니냐? 더욱이 밧줄, 먹실이며 도끼, 톱 따위 형구를 만들기에 겨를이 없는데도 그 악한 짓을 막을 수 없지 않으냐?

- 박지원, 호질 -

# 언 어 영 역

공 통 10

현대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과거에 우리가 지켜온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던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던 두레, 계, 향약 등의 미풍 양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기는커녕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가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금 우리가 자원 봉사를 하려는 것도 이러한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원 봉사의 기본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쁨의 손을 잡는 것이다.

자원 봉사라는 용어의 어원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나타내는 라틴어 '볼룬투스(voluntus)'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국가 권력이나 어떤 권위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인 동시에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활동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자원 봉사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먼저 자원 봉사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는 자신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확실히 파악한 후,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힘들고 고된 일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봉사자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원 봉사는 남을 돕는 자선(??)과는 다른 것이다. 자원 봉사를 '남을 돕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자원 봉사는 내 이익을 희생하여 이루어진다'는 고정 관념에 젖기 쉽다. 나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원 봉사를 마음먹고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월감 때문에 받는 자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편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되어서는 자원 봉사의 효과는 반감된다. 자원 봉사는 우월한 측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봉사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하게 되는 평형 장치이다.

# 언 어 영 역

공 통 12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가을에 더욱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막혔던 사연들을 띄우고 예식장마다 만원을 사례하게 된다. 우리 절 주지 스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가을에 몇 번인가 주례를 서게 될 것이다.

결혼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모르고나 치를 형벌 같은 것이라고 씁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고 제법 인류학자 같은 말을 하는 이도 있다.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선량한 상식인은 할 만 한다.

여름내 보이지 않던 그가 며칠 전에 불쑥 나타났다. 전에 없이 말수가 많아진 그는 이 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소에 결혼 같은 것은 않겠다고 우기던 그라 장난삼아 이유를 물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늘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좋아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그 뜻에 복이 있으라고 빌어 주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인간사(?□?)에는 □그늘이 진다. 우수(??)의 그늘이 진다.

그런데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사람은 분명히 홀로 태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혼자서 죽어 간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도 혼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도 저마다 홀로 서 있듯이, 지평선 위로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은, 시인의 날개를 빌지 않더라도 알 만한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따로 해야 되고 행동도 같이 할 수 없다.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인연의 주재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도그마이기에 앞서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될 우주 질서 같은 것.

죽네 사네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난 사람들도 그 맹목적인 열기가 가시고 나면, 빛이 바랜 자신들의 언동(?ㅅ)에 고소(나?)를 머금게 되는 것이 세상일 아닌가. 모든 현상은 고정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늘 함께 있고 싶은 희망 사항이 지속되려면,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서로 얽어매기보다는 혼자 있게 할 일이다. 거문고가 한 가락에 울리면서도 그 줄은 따로따로이듯이, 그러한 떨어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언어영역

13 공 통

〈앞부분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 작부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영달은 백화가 잘 걷지 못하자 그녀를 업고서 산길을 걸어 감천 읍내에 도착한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 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휙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 언 어 영 역

공 통 14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인체나 규모가 큰 소재들을 다루는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조각가들은 조그맣게 축소된 조각을 점토나 밀랍으로 만들어 본다. 그것을 '마케트'라 부른다. 그런데 이 작은 마케트들은 조각가가 작품을 구상하는 데 매우 쓸모가 있다. 특히 조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인 실공간(Positive space)과 허공간(Negative space)의 변화를 보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조각에서 실공간이란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재의 공간을 뜻하고 허공간이란 작품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이 이루어내는 조형적인 가상공간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개'에서 개의 몸과 사지(??)가 차지하는 부피는 실공간이 되고 몸과 바닥 사이, 사지 사이의 공간 등은 허공간이 되는 셈이다. 노자가 말하던 그릇과 수레바퀴의 빈 공간처럼 이 허공간은 조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이 허공간에 어떤 다른 물체가 놓여 그 공간을 훼방 놓고 있다면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조각에 필요한 것이 이 실공간이나 허공간만은 아니다. 한 점의 조각이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아무 것도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피라미드보다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 여기 저기에 있는 빌딩 앞의 조각들의 일부는 바로 이런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조각을 제한된 방향에서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조각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잠식되어 버린 것이다. 그럴 경우 조각은 환조라기보다는 □부조에 가깝게 되어 버린다.

조각은 입체다. 그러나 조각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입체라는 이 간단한 생각을 조각가들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조각이 건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회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도 오래 걸렸다. 미켈란젤로는 이에 대해 회화가 구도상의 문제에서 부조의 효과에 접근할 때는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부조가 회화적인 효과를 내려고 든다면 그것은 훌륭하지 못하다고 한 적이 있다. 이는 회화란 평면 위에 3차원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조 같은 입체감을 가져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부조가 평면적인 회화를 흉내 내는 것은 넌센스라는 뜻이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도 대다수의 조각가들은 입체가 아니라 표면의 효과가 얼마나 그럴듯한가에 매달렸다.

조각이 표면 효과가 아니라 입체 효과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로댕이었다. 영화 〈까미유 끌로델〉에서도 로댕은 끌로델이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보고 □'표면을 보지 말고 윤곽을 보라.'고 말한다. 로댕은 인체의 각 부분을 단순한 평면으로 생각지 않고 내부에 있는 볼륨이 터져 나올 듯이 표현할 때에야만 인체가 단순한 표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꽃과 같이 밖으로 피어나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이 한국어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개별 언어 한 가지를 쓴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한국어에는 녹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종족은 무지개의 빛깔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한다. 우리의 옛 기록에는 무지개를 백색이나 오색으로 표현하였고, 최근에는 일곱 가지 빛깔로 표현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지개가 실제로는 어디 일곱 빛깔뿐이었겠는가? 과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빛깔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개를 언어로 추상화할 때 문화권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무지개라는 외계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문화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한자의 청록(??)에 대해 우리말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 '푸르다'는 말뿐이다. 하늘도 '푸르고', 풀도 '푸르다'라고 표현한다. 빛깔의 색상이 엄연히 다른데도 이 두 가지 빛깔에 대한 우리말은 '푸르다'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인식의 차이이며 문화의 차이이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사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친·외·내종·외종'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cousin'으로 이를 통틀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일가·재종·삼종까지도 뜻할 수 있다고 한다. 가족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말이 저들보다는 좀더 □자세한 편이다. 그러한 관계를 'cousin'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나타내기보다는 사촌은 물론 가족

관계를 좀더 자세히 표현하여 의미를 □나눈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생활이고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낱말에서만이 아니라 동사 활용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우리말에는 피동형이 발달되지 않았다.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머리를 깎이러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또 '머리를 깎였다.'는 표현도 잘 하지 않는다. '머리를 깎으러 간다.'거나 '깎았다'라고 말한다. 얼핏 보면 피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머리를 분명히 이발사에게 깎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발사는 제 마음대로 남의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다. 주인공인 내가 깎으라고 해서 깍은 것이니 깎은 주체는 '나'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는 '머리를 깎았다.'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스로가 깎은 것이 아니라 남을 시켜 깎은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누가 '머리를 깎이었다.'고 표현하였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머리를 깎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와 유사한 예들이 통사 구조에도 나타난다. 영어나 중국어와 우리말은 주술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가 온다.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우리말의 경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와 네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밝힌다. 이에 비해,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나온 뒤에 목적어인 상대가 나온다. 이러한 통사 구조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두 언어군 사이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차이이고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7 공 통

# 언 어 영 역